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입문 향상
만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성령이여, 우상을 멸하소서

"자녀들이 너희 자신을 777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일5:21)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땅의 죄악과 우상을 결코 간과할 수 없게 만드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17:17)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주 자주 그분에게서 멀어져 갔다. 오랜 시간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경고하셨다. 돌이키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출33:5, 신9:13), 천천히 수양과 번제를 드리지만 마땅한 밭은 백성들(사1:12)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방 족속들이 추구하는 것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의 발래에 짓밟히게 내어주셨다.

신약의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갔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왕성했던 초대교회와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 패락과 우상, 거짓 교훈들의 도진 앞에서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점점 무기력해져 버렸다(계2:8).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온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뜨겁게 증거하고 다니던 그들의 감각과 확신이 사라졌고 동시에 세상을 뒤쫓는 이방인들의 교회의 능력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교회도 이방인의 발래에 짓밟히 버릴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패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는 영원한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 무너지는 것은 순전히 우리들 때문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용사가 아니라 우상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우상을 보았는가?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존재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믿어다(고전3:16). 부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우상이며, 명예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우상이다. 권력에 대한 추구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고후6:16). 오소서, 진리의 주 성령이여! 우상과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2000년도 제3차 학술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사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6월 11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314호	교육관	교회론 (정형훈 목사)	교육관	유아세례 307호	
	2교시 16:00~16:50	기독론 (정형훈 목사)	교육관	세례론 (김병태 목사)	교육관		
6월 18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김진익 목사)	교육관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유아세례 (이종성 목사)	교육관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314호
6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지역 찬양예배, 분당)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렐)		

6월의 김성관 목사 설교 제목 및 본문

일시	예배	본문	제목
6월 4일	전·3·5부	요 16:29-33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
6월 11일	전·3·5부	행 2:41-47	초대교회에 다시 회심하라
6월 18일	전·3·4부	마 27:22	빌라도의 질문
6월 25일	전·3·5부	요 11:38	무덤의 예수님

6월의 주요행사

정기당회(7월)

성령강림기부 특별금요집회(9월)

성령강림주일(11월)

정기제직회(11월 찬양예배후)

제3차 학술세례식(25일)

뜨겁게 드러진 오순절 금요 집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올 때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한 말이 이것이요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임하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눅24:44-49).

초대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은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었다. 그 약속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난 주 금요일의 시간에 충현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찬송 소리는 본당 안을 가득 채웠고, 기도하며 준비된 특별 찬양은 성도들의 가슴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다가왔다.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합심기도와 장로들의 대표기도는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 하늘을 향해 퍼워 율리는 현선의 향기가 되었다. 또한 성령님에 대한 성경말씀이 장로들에 의해 낭송되었고, 담임 목사에게 의해 설교로 선포되었으며,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들을 마음으로 간직하였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말았다!

이번 오순절 특별금요집회를 계기로 충현의 모든 식구들이 더욱 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참된 영적인 부흥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4:4, 6).

충현의료선교의 날 은혜가운데 마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10:27)

지난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당 앞마당에서 사랑의 의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의료선교 행사가 있었다. 이곳을 찾은 이들은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충현의료인의 손길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베풀어졌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살핌의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고 국내의 모든교회들이 함께 동참해야 할 중요한 사역임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자선한 내 용은 4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교역자동정

2000년도 하반기 교역자 인사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①위원회별로는 찬양위원회에 차병준 목사, 기쁨위원회에 김동하 목사, 제2교육위원회에 류병태 목사, 제3교육위원회에 이종대 목사, 전도위원회에 정현민 목사, 교구위원회에 이종성 목사가 임명되었다. ②교육부서별로는 고등부에 김영준 목사, 대학부에 류병태 목사, 장년2부에 김병태 목사, 사방부에 노정록 목사, 탁아부에 송창하 목사가 임명되었다. ③교육훈련원별로는 교리성장원원리에 김동하 목사, 전도훈련원원리에 정현민 목사, 도서장학회에 이종성 목사가 임명되었고, 안수 집사회에 이종성 목사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④교구별로는 4교구에는 전형훈 목사와 이종우 전도사가, 5교구에는

정갑신 목사와 신동자 전도사가, 6교구에는 홍순애 전도사가, 7교구에는 안태순 전도사가, 8교구에는 김갑자 전도사가, 11교구에는 이종철 목사와 최지혜 전도사가, 14교구에는 이재훈 목사, 17교구에는 노정록 목사, 19교구에는 류병태 목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종철 전도사와 이경환 전도사가 대학부와 초등부에 각각 임명되었다. 또한 그 동안 교회로 섬기던 김우주 목사, 김동석 목사, 박경환 목사, 조문환 목사, 이승하 목사가 사임하게 되었다. 새롭게 사역을 담당하게 된 이들이나 새로운 사역자로 떠나는 이들 모두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Pilate's question

(Matthew 27:22)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Pilate asked.

They all answered, Crucify him!"

What shall I do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This is the question Pontius Pilate posed to the large crowd that had gathered around him. The crowds response was, "Crucify Him!" Under first century Roman authority, Pilate had tremendous power. As governor of Judea, he had the capacity to release or kill prisoners. It was his habit to release one person from prison during the Passover feast—a politically suave endeavor of charity. During this celebration, he had two prominent prisoners, a notorious prisoner called Barabbas and an innocent prisoner named Jesus. The crowd, influenced by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wanted Barabbas released and Jesus crucified. The whole scenario appears as if Christ stood in judgment before Pilate, when in reality Pilate stood in judgment before Christ.

Pilate found himself in the midst of a strange predicament. The attitude of Jesus toward his accusers amazed him, his wife's warning to have nothing to do with Jesus alarmed him, and the hostility of the crowd against Jesus bewildered him. In his viewpoint, the crowd knew Jesus. Just weeks ago they had heralded Him into Jerusalem singing, "Hosanna, Hosanna, the Son of David." It was this crowd who had followed Jesus for three years and experienced or heard of his feeding and healing ministry. All the people that stood before Pilate guaranteed him that Jesus' blood would be upon them and their children, not him (see v. 25). Isn't that startling?

Actually, Pilate's question is quite serious. Even as a Gentile, his eyes could see that Jesus was not a sinner. His wife knew that Jesus was righteous (see v. 19). Basic human consciousness revealed His innocence! Matthew purposefully wrote about this situation, and especially about the series of unhappy affairs that led to it. In chapter 26, we find an abundance of sorrow: Judas Iscariot's betrayal and hanging, Peter's denial, Christ suffering in the Garden of Gethsemane, the chief priests and whole Council's cruel acts, etc. All these sad things happened. The conflict, cruelty, and contrite circumstances of human life made Pontius Pilate's question very important, not only to himself but to the crowd. It's a question that affects everyone today.

What should you do with Jesus? This is the question that now faces every human upon the face of

the earth. Is your reply to crucify Him? This question tore Pilate apart. He was desperate. He didn't want to sentence Christ to death. It became more apparent to him, as the time neared for his decision, to deny the fickle multitude. But he didn't, he succumbed to sin. The prophet of Galilee healed sick people, brought miracles to dead people, cleansed lepers, and preached the Kingdom of God. He was famous. When He traveled He was so popular that the people welcomed Him into Jerusalem with "Hosanna". For

power to do the right thing, but chose not to. His decision to crucify Jesus is the same for those who deny Christ today.

Pilate's question is a question that demands action. What shall I "do" with Jesus? Trying to escape a decision, he washed his hands in front of the crowd. This was a symbol of absolution of an innocent man from implication in a wrongful death. So silly and so sad. His policy of neutrality was ridiculous. Claiming innocence by washing his hands of the matter was

pure nonsense. This was a question he had to act and decide on, not blame someone else. We are faced with the same option, to receive or reject, to obey or disobey, Christ. You can decide to openly confess Him or deny Him. You can make Him Lord of your life or slight Him. What are you going to do? The Apostles' Creed states, "I believe in Jesus Christ, who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Christian's confess that this actually happened. So, what kind of actions are you going to take?

Lastly, Pilate's question addressed Jesus: What shall I do with "Jesus"? This question qualifies a response tha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It's not a question about any person but a question about the most important person that ever existed. All of Pilate's other decisions were dwarfed by this one! Every single decision he ever made in his life up to this one was temporary. This decision was eternal. It's a question that the whole human race must answer. Questions like, what should I do about church, what should I do with my house, what should I do about my pride, and what should I do with son/daughter, are transitory. This

question is about Christ the Creator, Savior, and Judge. Just as Pilate had to choose between Christ and Barabbas, so do you. It's the most important decision Pilate made and you'll ever make.

What will you do then with Jesus? It's a personal question! It's a question that requires action! It's a question about Jesus! The call to a decision and commitment faces you now. Don't look around for an answer. All the people at the Passover feast applauded, "Crucify Him". Look only to Jesus. If you look a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you won't make the right decision! If you just go along with the crowd, you'll be led astray. Confess the truth, confess Jesus, and He will set you free, from the prison of sin and the penalty of death. His victory at the cross is your victory. You have God's Word on it! 

***Don't look around
for an answer. All the people
at the Passover feast applauded,
"Crucify Him". Look only to Jesus.
If you look a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you won't make the right decision!
If you just go along with the crowd,
you'll be led astray. Confess the truth,
confess Jesus, and He will set you free,
as only He can, from the prison of sin and the
penalty of death. His victory at the cross is your
victory. You have God's Word on it!***

Jesus, no one stepped forward to help. Only human betrayal stood between Him and the cross that awaited Him. It's right here, in the story, that Pilate asks the people, "What should I do with Jesus. He's not guilty?" He already knew the answer. The earthly judgment that came from his lips was apostasy.

Considering the magnitude of Pilate's question in our own lives, let's look more closely at it: What shall "I" do with Jesus? "I" signifies a personal dimension. On occasion proud judges avoid "I", but here Pilate wasn't being humble by using "I". Quite the contrary, he tried to evade his responsibility. The final decision laid in his hands. He could not escape that fact. His method of letting the crowd make his decision was a very poor choice. Although some countries use juries to decide the fate of prisoners, this situation was different. Pilate knew Jesus was innocent. He had the



김성곤 목사

빌라도의 질문

(마 27:22)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만왕의 왕을 심판하는 빌라도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이것은 본디로 빌라도가 그의 주변에 둘러앉았던 커다란 무리들에게 물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1세기 로마정부를 통치하는 빌라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통치자로서 죄수를 놓아주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유월절 기간 중에는 감옥에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정치적인 선심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절기 동안에 그는 두 명의 중요한 죄인을 다루어야 했는데, 한 명은 ‘바라바’로 불리는 흉악한 죄인이고, 다른 한 명은 예수라고 불리는 흠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영향을 받은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광경은 마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빌라도에게 심판 받기 위해서 계십니다.

어려운 난관에 직면한 빌라도

빌라도는 자신이 묘한 곤경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을 대하는 예수의 태도에 놀랐고, 예수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라고 하는 아내의 경고가 그를 놀라게 했으며, 예수를 대항하는 무리들의 적개심이 빌라도를 당황하게 한 것입니다. 그의 견지에서 볼 때 그 무리들은 이미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 주간에 그들은 예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노래하며 예루살렘을 돌다녔고 그 때 이미 무리들은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며 주님에게 먹이신 고지시는 사역을 경험하거나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돌리라고 보았습니다(마 25절 참조). 이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빌라도

사실 빌라도의 질문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예수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19절 참조). 인간

의 근본적인 양심의 자각이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연속해서 벌어진 불행한 일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며 기록했습니다. 마태 26장을 보면 많은 슬픔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는 가롯 유다가 배반하고 자살한 일,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겔세마네 동산에서 제자인 가롯 유다에게 팔린 일과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와 잔인한 행동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모든 슬픈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대립과 잔혹함 그리고 삶을 후회하게 만든 상황들은 본디로 빌라도의 질문을 매우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권세에 굴복 당하는 빌라도

당신은 예수께 무슨 일을 하시켰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땅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면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대답도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질문에 자기가 질서서 내기었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정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는 아주 번덕스러운 군중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천국을 전하는 갈릴리의 선지자, 세상의 참된 주인 예수를 십자가에 걸려있는 죄를 지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널리 퍼졌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환영받을 만큼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범법에서 정작 예수를 돕기 위해 나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인간의 반역만이 예수와 그가 못 박히게 될 십자가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내가 무엇을 할꼬, 그가 무죄하지 않은가?”라고 물은 것은 옳은 말이었습니까. 빌라도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입술에서 나온 세속적인 신고는 비겁한 결정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

우리의 삶에서 빌라도의 질문이 던져주는 중요한 의미를 보다 더 면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서 “나”는 개인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식전 있는 재판관은 공적인 판결을 할 때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본문에서 빌라도는 “내가”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겸손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죄수의 결정이 그의 손에 달려있었습니다. 그가 내려야 할 결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군중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의 방법은 아주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떤 나라에서는 죄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 범죄된 제도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한 그의 결정은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빌라도

빌라도의 질문은 행동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에게 무엇을 “할꼬?”, 빌라도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보이기 위해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표명할 때 취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그의 중립적인 정황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깨끗으로 해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주 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결정해야 하며,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선배를 내려야 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그에게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에게 믿음을 고백하거나 그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거나 그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작정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문을 받으니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할

작정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결정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이 질문은 가장 중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한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빌라도의 모든 다른 결정들은 이한 가지 질문에 의해 가치가 축소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려왔던 결정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결정은 영원히 판례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인생의 답답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자존심을 위해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자녀를 위해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나 영원한 질문은 있는데 창조자요, 구원자요, 그리고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곧 빌라도는 그리스도와 바라바 둘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당신도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참된 자유에 이르는 고백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소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기 위해 손을 돌리십시오. 마시십시오. 유월절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주위의 환경을 쳐다보다면 절대로 옳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무리를 따라간다면 당신은 전리의 길을 걸어내려갈 것입니다. 전리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의 구속과 죽음의 형벌로부터 당신을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우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당신의 승리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

‘충현의료선교의 날’ 행사 은혜 가운데 마쳐

“사랑의 의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본당 앞마당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충현의료선교의 날’ 행사가 펼쳐졌다. 이 행사는 본 교회 선교위원회의 소속 의료선교부와 국내외국인선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 교회에 출석하는 외과, 내과, 안과, 치과, 산부인과, 한방과 6개 진료과의 전문의사, 약사 및 간호사 20여명이 진료, 조제 및

상담을 했다. 이날 무료로 진찰을 받은 외국인인 600여 명으로 이들은 대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있는 3D 업종(타이어, 위험하고, 힘든 일)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당일 행사는 또한 이마용전도회(회장 이정우장로)에서 심 여명의 봉사자들이 나와 종일 외국인들의 머리 손질을 해주었으며 다른 차원의 사랑을 베풀기도 했다. 이날 소변검사, 피검사 그리고 스케일링(치석 제거) 서비스까지 받은 외국인 행자재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도우미들의 안내를 따랐다. 물론 짧은 시간에 수백 명이 여러 가지 진료를 받는 관계로 진료 장소가 복잡하기도 했으나, 의료 봉사자들이 식사를 거르면서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 행자가 무료 진료 기회를 맞아 교회에서 소변검사를 했다. 소변 검사에 이상이 발견돼 다시 그 자리에서 피검사를 받았다. 피검사 결과 역시 보통 사람보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현저히 낮아 이번에는 우리 의료진의 정밀검사를 받았다. 진료 결과와 위(위)는(개)출혈, 우선 매우 위급한 상태로 관병에 다음 날 즉시 현대중앙병원에 입원했다. 그 행자에게는 생명을 구한 사건이었고, 교회로서는 의료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주일 예배시 주자장으로 사용되는 본당 앞마당 일부를 차지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오후에는 제 2교당에서 모이는 교구모임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웃음과 관용으로 이해해 주셔서 당일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치러진 이번 무료 진료는 일시적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증 환자를 향후 계속 치료하며, 각 개인 진료 파일을 만들어 보

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건강을 돌볼 계획이다. 의료선교부는 이미 매 주일마다 3,40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 약을 제공해 왔는데, 이날 행



사를 통해 서울 시내와 경기도 일대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건강 검진을 제공함으로써 전도의 문을 새롭게 열게 되었다. 현재 선교위원회의 국내외국인선교부에는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 350여명이 매 주일 출석(제적 400명)하고 있다. 이들의 종교는 주로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힌두교인데 이들은 주일 오전 자라 집회를 하고 오후에 6개 국어로 통역이 되고 있는 본 교회 4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 외국인 집회 및 예배는 6개국어로 동시 통역되는데 현재는 특히 이란어와 베트남어의 통역자가 절실할 필요다. 본 교회는 3년 전에 국내외국인선교부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는데, 그동안 15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인이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선교는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 전략으로서 본 교회도 일찍이 그 중요성을 인식해 주중, 상방, 무료 진료 사업, 구제 사업, 산업 해체 상담, 구제 안전 등을 통해 같은 행인들의 마음을 얻어 왔다. ‘충현의료선교대회’ 같은 행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사람 살림을 통한 복음 전파이며, 이는 본 교회 선교 전략의 최고 목표이기도 하다.

(선교위원회)

장호원 국군교도소를 다녀와서

교정전도회에서는 전국 각 처의 교도소를 방문하여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각 교도소마다 사역팀이 있어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특별 전도집회도 갖는다. 이 집회에서는 사역팀과 목사님, 장로장로님, 요벨 중장년, 교정전도회 회원들이 가서 수감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말씀도 듣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들이 특별한 흠악자들이 아니고 바로 나와 그들과 똑같은 모습과 마음을 가진 자이지만 다만 그들보다 환경이 나았을 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에는 장호원에 있는 국군교도소를 다녀왔다. 우리 일행이 도착을 하니 예배당에서는 찬양 찬양소리가 들려왔다. 은혜를 감당하는 영혼들의 소리였다. 그곳의 젊은이들, 잠시 참지 못한 실수로 갇혀있지만, 그순간 너무나 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 도우나를 울려라게 만들었다. 주님 살리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향년 장로님의 기도, 요벨 중장년들의 찬가와 찬양이 담긴 연주가 있는 후 류병희목사님의 주의 성전을 바라보라! 내 성전에서 내가 받는 고난이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할 때 소망과 희망이 있다. 내가 힘들 때, 주의 복전에서 찬가와 찬양이 담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라! 그럴 때 희망과 소망이 있다. 마음이 굳어질 때, 주의 성령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죽을 수 밖에 없다.

나의 마음을 처서 복종시키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나의 삶의 구조를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수 있고 구원이 있다. 고 말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저기서 ‘아멘’ 이 나왔고 너무나도 정숙하게 말씀을 경청했다. 장호원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이복목 목사님에 따르면 1년에 2천명에서 3천명의 수감자들이 들어오는데 그곳에서 1년6개월이 지나나 다른 일반 교도소로 이감된다. 일반 교도소에는 환경이 훨씬 나쁘고 땀더러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곳보다 나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며 바로 오늘 350명이 이감되었다고 하셨다. 그들 중 250명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다는 곳에 가서 주님 믿고 지내다 격정해서 기도부탁하셨다. 수감자들중에는 성경을 많이 읽고 필독도 하는 자도 많다고 하셨다. 우리가 선불한 성경을 참 고마워한다. 교도소에도 있는 사람들이 중 80%가 결혼가정에서 자란 자들이라 하셨다. 우리는 그들에게 맞춘 자들이다. 사회 자들, 손가락질 받는 그들, 모두 그들을 향해 외치고 그들이 한 행동을 유하며 비난을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너무 나 똑같은 자들이기에 더욱 그들의 영혼이 불평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열매가 훨씬 늦게 나타날지라도 한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을 생 각하면 이 사역이 얼마나 중하고 귀한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당해야 할 일일 것이다.

(교정전도회 아내나사)

나온자 한국교는 열림이요

충·현·전·도·대

‘97년 전도폭발훈련으로 시작된 충현전도대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도의 의, 방법, 내용, 4영리, 글없는 책(언어이용) 등 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훈련 받고 있다고 한다.

전성태에 나갈 때 준비된 마음, 충과 그 밖의 장비를 필요하

전도에 있어서도 무작정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앞에 헌신된 마음과 기도, 말씀, 훈련들이 뒤따르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충현전도대는 현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총 8주에 걸쳐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교육의 주된 내용은 복음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왜이러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는 다방전도와 연약한 마음을 갖기야 말씀 전하는 병행전도, 교회주변의 집을 중심으로 집집마다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축조전도도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일별로 세분화 되어서 팀별로 정해진 시간에 전도하러 나가고 있다.

전도할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는 질문에 장순옥 집사
은 “오늘도 주께서
를 보내신다는 것
과 나를 사용하
서 만났음을 만
나 해 주시고,
그들이 마음
을 열도록 간
구하는 것, 그
리고 성령이 주
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
하기를 소원하며 기
도는 그 마음이라
고...”

한마디로 성경에서 친히 감동을 주시고, 아들이 주사 하시고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대원들 한사람 한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250여명의 수교자가 나왔지만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은 80여분에 지나지 않는다. 전도대의 훈련은 전도대에 열심있었던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평일에 실제 사역에도 동참하고 한다. 또한 전도대 훈련을 받고 변화된 분들도 많다고 하시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전도와 기도를 병행해서 나간다면 어렵기나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 주의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을 드리는 위해 충현 전도대의 중보기도와 적극적인 헌신과 필요할 때인 것 같다.

“복음들과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최은아 기자)

인도받은자의 편지



중학교때부터 시골에서 교회에 갔었지만 그 이후로 교회가
본적이 없었는데 직장언니가 '교회에 나와보지 않겠느냐'
는 권유를 했습니다. 처음에 망설였으나 나중에 용기
를 내지요. 지금은 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다른 분들처럼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이 강하진 아니지만 새가족부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곳에 모인 분들과 좋은 사람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보니 어느덧 2개월째군요. 총현교회를
알게된 것이 어색해 하는 것을 위해 충고와 도움 말씀들을 주
시는 선생님께서 인해 요즘은 하가지척 아침에 기도를 함으로 생활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세상의 기준으로 가늠할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은 한 총현교회
식구들을 볼수 있다는 것도 제게 초그만 기대와 즐거움입니다. 그 미소들을 담고 싶다는 생각도 하
고 있고요. 지금은 교회 생활에 적응도 하고 말씀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지만 적도 언젠가는 자연스
런 한 신앙인이 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를 총현교회로 이끌어준 언니와 함께, 대제사장에 참석하
는 데 그렇게 웅장하고 경건한 느낌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적 다녔던 교회는 아주 작은 시골교회였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현의 예배는 굉장히 커다랗게 느껴집니다
2000. 6. 11 김민희

'인도 받은자의 편지'란은 전도받아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전도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를 읽니다.

만평

글 · 그림 / 장 민(mini74@jaangminn.com)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안갑수 ♥최경미' 부부를 소개합니다



안갑수 형제는 세례교인입니다.
아내되는 최경미 자매의 신앙성장을 위해 새가족부 집회에 열심히 참여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이면 약속을 받게되는 아내를 위해 개근할 예정으로 열심히 읽고 남편과 매
일 중현의 만나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배우는 일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
여로 신앙성장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



언뜻 스
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주일 5부 예배를 마치고 왔을 때 난
피곤으로 지쳐있었다.
일주일 내내 있는 학교수업과 토요
일, 주일이ավ부터 교회봉사하느라 제
대로 쉬수없었던 나에게 주일 오후는
너무나 힘에 겨운 시간이었다. 저녁
예배 들어가기전 잠깐 쉬기위해 나는
봉사하는 부서에 가서 쉬기로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잠깐 앉아있는 순간 평소애 존경하던 장로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닌가. 피
곤에 지쳐있던 나에게 장로님은 어렵게 느껴졌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우리들
을 돌리시더니 우리들에게 갑자기 시련의 말씀을 들려주시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기를 갈망했던 시련의 구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
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만하여 하느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영
혼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42:5)를 며칠전 Q.T할 때
는 해 받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것 마
장로님의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로, 새힘으로 다가왔다.

말씀의 은혜



어떻게만 느껴졌던 장로님의 모습은 그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인 것처럼
친한 친구의 위로로 다가왔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모습 또한 나에게 큰 도전이
였고,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었다.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 다가 오신 예수님을
나는 또 다른 일들로 인해 잊고 살고있지 않으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최은아 기자)

종현소식 정약석 우보지 공동체 운동을 다녀와서

성령의 단비

이 회 주 (대학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6:8).

차가운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정계산은 참 깨끗했다. 사실, 나는 화창한 날씨를 기대었다. 좋은 날씨 가운데 정계산을 오르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었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천군부터 내린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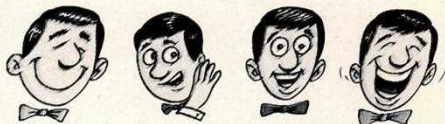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단지 날씨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웃는 날씨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우리는 계획을 약간 변경하여 정계산 일구에 있는 정자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기로 하였다. 우리는 밋소리보다도 찬양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힘껏 찬양을 하였고,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설교 말씀에 집중하였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렸었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예배당에서 편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다.

예배를 드린 후, 우리는 예정대로 산으로 향했다. 돌 짝 짝을 지어 우산을 쓰고 정계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비록 산에 사람들이 없어서 주님을 전하는 일은 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허락함으로써 즐겁게 산을 오를 수가 있었다. 나는 온정하고 산을 오르면서 지금껏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였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너무 나약해 있다는 것, 서로의 비전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 등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었다. 또 비에 젖은 나무들의 파릇파릇 맑은 공기를 느끼면서, 진정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임을 느꼈다. 산길이 미끄러워서 정장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우리의 기는 걸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힘든 등산길도 즐겁게 다닐 수가 있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비때문에 옷도 다 젖어 있었고 신발도 진흙투성이였다. 하지만 우리는 더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할 수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값진 성령의 단비를 듬뿍 맛았으니가!

이·사·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한다. 공동체 안에는 모든 일을 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공동체는 유지되어 나간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이들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훈훈해진다.

중등2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무엇보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잠12:24,27)을 신실히 이행하는 사람이다. 주일날, 교회에 제법 일찍 나오는 사람도 이 사람이 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언제나 그는 이미 교회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신학생들과 아이들이 오기 전에 미리 와서 이것저것을 다 챙겨 놓고 예배를 준비한다. 부수 안과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주자구 하는 것이다. 무거운 술이나 점통을 들고 가는 그의 뒷모습은 모두의 눈에 익었을 정도이다.

그는 엄격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사실 교회학교의 교사들은 잘못된 아이들을 꾸짖는 데 인색하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혹시 출석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꾸짖하기를 선뜻 내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평소의 다독이던 못지 않게 혹독하게 꾸짖는다. 그의 꾸짖은 아이들의 눈물을 쏘 빼게 할 만큼 매서워서 그 당시는 원성을 듣기도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 아이들도 그의 참사랑을 깨닫는다. 그래서 언제나 그의 주변은 아이들로 만원이다.

오늘의 그와 잊기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있었다. 그의 아버님은 그의 믿음의 스승이었다. 교회를 개척한 아버님의 모습은 어린 그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자신도 아버님처럼 주님을 복음전도로 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게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한때 그는 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려주시면 남은 생애를 주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잠이 든 사이 주님은 그를 치유하셨다. 이런 지난 날들이 오늘날 그를 헌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는 교회일을 맡겼고 나서서 사람들은,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고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 그래서 손과 다리가 바쁜 사람, 그리고 늘 웃는 친근한 사람, 1남1녀를 둔 서른 여덟 살의 아버지, 그는 중등2부의 이신동 선생이다. 이름 그대로 그는 믿음의 아들이다.

"아무 일에도 저 따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빌2:3) (정연희 기자)

찬양과 온기가 있는 공간

임 숙 자

〈임숙자 자매는 타고교회에 출석하면서 서울역 사역을 하고 있다. 청년2부는 매주 목요일 오후 서울역에서 찬양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차하는 거리 서울역.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40분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모임. 나는 그곳 서울역 광장을 향하고 있다. 학교 율동제를 회장이던 미향 언니(후-청년2부 박미향 회원)의 제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 이제 여섯해가 지났다. 그 동안 함께 울동하던 '코람테오-율동제'를 회원 모두 결혼과 육아로 이제는 오기 힘들다. 본의아니로 통신방이 되어 서울역 소식을 전하기도 누누에게 든 반가운 사람들이고 꿈이 있고 찬양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기억된다.

목척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 속에 내 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광장을 지나 각 장소에 집으로, 혹은 여행지에 가고 돌아오기를 하는 사이 들리는 찬양소리와 성구제창. 창래가 갖은 광장 한편,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나 핸드폰, 노숙자들의 거친 말이 오는 사이 찬양을 하고 기타반주 소리는 정겹다. 어떤 이들은 관심을 갖고 멈춰 발걸음을 멈춰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선은 무관심하고 차갑다. 저 아저씨 또 오셨네! 방해를 놓는 걸인 아저씨와 몸싸움, 그 안에서 또 다른 노숙자 아저씨가 말려주고 한쪽으로 떠나라 주신다. 매주 만나면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



가난한 아저씨가 주머니의 돈을 털어 차를 뺏아 주시길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가를 같이 부르시는 아저씨들엔 우리도 감동을 받는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할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찬양으로 가난히 질문을 던져준다.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전도지에 쓰여있는 작은 글귀가 마음을 열어 주었으면... 찬양을 하며, 사람들을 바라보다, 우리의 기도는 되풀이 된다.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때때로 메마른 모습으로 선 우리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신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역에서 더 많이 받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 개인적으로 서울역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 늘 감사하다. 오는 목요일, 발걸음을 재촉해 서울로 가자!

청년1부 임숙자언니를 만나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열정으로...

변 성 주(청년1부)

지난 주일 집회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시작된 청년1부 여름수련회는 지난 5일(월)부터 7일(수)까지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다.

주일 밤 늦게까지 기도회로 모든 청년들은 원일 회사에서 피곤하기 바쁘게 교회로 모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련회 장소로 향했다. 저녁에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열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른 아침 하나님께 지으신 초록의 자연을 감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오전에는 특강시간을 가졌다. 점심을 먹고 다소 더운 날씨에도 단 자율적으로 교사 신학생들과 주위를 선회하며 신앙에 대하여 상담하고 잘 몰랐던 지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주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저녁 말씀을 통해 작은 변화가 큰 성장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어진 '주님 일곱'에 시에는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모두들 드리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의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7개의 사역님과 9명의 해외송도단기 평신도선교사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청년1부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 열매에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열매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헌신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귀한 결심이 있는 시간이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들을 보내고 수련회에 있는 회원들의 가슴과 생각들은 꼭 차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열정으로...

지체들 소식

청년2부
여름수련회

7월16일(주일)부터 18일(화요일)까지 충현기도원(미정)에서 제31회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내적 부흥'(주제성구 갈 5:1). 김인식 지도목사와 최처혜 전도사를 강사로 특강과 부흥회를 개최하고 공동체 놀이, 성경공부 등 다양한 순서를 마련한다. 30대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청년2부 통신원)

3교구

지역별 찬양대회

지난4월 교구모임때 루디아 주체로 지역별 찬송가 부르기 대회가 있었다. 기쁨으로 찬양드리려는 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찬양이란 것을 전제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 가운데 1지역이 믿음상, 5지역과 6지역이 소망상, 그리고 2,3,4,7,8지역이 사랑상 등을 받았다. 또한 은혜가 넘치는 이영숙 권사님의 평가 함께 많은 교구식구들이 나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 또한 아름다웠다. 목사님가정의 복송과, 클라리넷 연주자 찬양대회를 멋지게 만들었다. 또한 5지역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말씀 프래카드, 플랫원주는 더욱 인상 깊었다. 오순절을 앞두고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교구 식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 (백미경 통신원)

9교구

영성훈련

이번 교구 영성훈련은 5교구와 함께 하였다. 교회에서 오가며 빛나는 얼굴들이지만 교구가 달라서 이름도 잘 모르고 지나쳤는데 서로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고 순서진행과 간식준비 등을 함께 함으로 교회의 한 지체됨임을 느꼈다. 1부예배 때 정형성목사님에게 '중보기도'(엡6:18)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직접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나라와 교회 그리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수시로 성령안에서 기도하되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식사와 친교시간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할당된 밤에서 교구마를 입고 2부기도회도 5교구 정강신목사님께서 왕하22장 7절로 "그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다. 내안에서 내 가족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통성기도를 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모습인 말씀으로 공부하고 기도로 훈련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정옥련 통신원)

결혼준비교실

- ♥ 일 시 : 2000년 7월 2일(주일)부터
매주일 오전11시-12시30분
- ♥ 강의기간 : 6주
- ♥ 강의장소 : 신촌가정부실(교육관 201호)
- ♥ 참가대상 :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
- ♥ 그룹활동 : 그룹 전체가 모여 주제강의를 들을니다.
필요시 커플 혹은 개인상담이 주어집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다른 커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 ♥ 등록안내 : 552-8200(교한429)
- 접수기간 : 6월11일 - 7월2일
- 접수처 : 매주일 신촌가정부실 (교육관203호)
- 선착순 20쌍으로 제한

물매들

역경과 기회

김규식 (집사, 6교구)

○ 리의 인생길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사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과 역경을 보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형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려고 하셨다. 역경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 역경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공동체의 수준을 나타내는 기회이기도 하다. 어느 학교의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의 머리를 세밀하였는데 그 머리에서 피가 뚝뚝 흘렀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수업하다 말고 학생의 머리를 감싸고 업어 병원으로 내달렸다. 연박반은 아이의 부친이 들이닥치면서 아이 머리를 바라보더니 왈 "머리를 때리셨어요. 예라 이놈 더 맛이라." 하며 기절하자 시끄러운 아들의 머리를 사정없이 더 쥐어 막는게 아닌가. '아 이 녀석! 아침에 내가 뭐라고냐 그 머리에 난 종기 짜지 않고 없더니. 아이고 선생님 어찌 그 애 종기 난 곳을 정통으로 때리셨습니까. 엉겁결에 종기가 터졌구먼요. 하하하...' 세밀때문에 시끄럽던 시절에 들은 우스갯소리이다. 매 맞는 중에 학생은 돈 안들이고 종기를 치료한 셈이 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역경이 기회와 삼금으로 바뀐 것이다. 우리 삶의 과정이나 공동체 중에는 많은 불가사의한 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왜 하필 나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만...' "왜 내게..." 라고 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다. 그러나 이 역경과 고통을 자원으로 하여 큰 이익을 생산해 내는 사람만이 용기 있는 지성인이며, 진정한 기독교인 일 것이다. 링컨이나 마틴루터 킹, 헨리 켈러, 베도벤 등 수많은 위인과 성인들이 모두 역경과 고난을 큰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고 손해를 큰 이익으로 바꾼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의 인생도 어둠이요, 낮아짐이요, 고통이요, 비참함 그 자체였다. 가난, 말기유, 배척, 십자가 등 모두가 고통이고 역경이지만 그 배경의 어두움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빛이 더 밝고 영광이 더 찬란한 것 일게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을 큰 자원으로 되게 해보자.

충현 지상교회학교
(紙上敎會學校)

성담실

Q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부터 자주 해질것 같은 의문이 일어나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형제의 주를 깨닫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참 귀하게 생각됩니다.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심각하게 그런 질문들을 해 보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신앙에 있어서 항상 모든 질문에 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림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어 주시는 만민만 알 수 있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셨는데 이것은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추었다.

생명의 근원도 지식의 근원도 하나님이기때문에 그 두 나무가 동산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이 자신을 에덴의 중심이라고 하면 사람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원죄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 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지만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야 이 '주님의 주지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에 있기에 선악과는 인간을 넘어선다는 물마가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 양호실

김규식 집사(15교구 축석2구역) 난소암으로 항암치수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김원대 집사(15교구 불현7구역) 간암이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도 협력 바랍니다.

임영진 어린이(11교구 신당 6구역) 올해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학교에 입학했지만, 한수술로 인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집에서 강병재와 있다고 합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홍동민 성도(1교구 연1구역) 1년만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지금까지 전신마비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